

구체적인 공약검증 필요

정책자료집 '교수중심·추상적' 지적 ... 유세 주목



- ① 정책자료집에 나타난 후보자 공약분석
- ② 정책연설·질의응답 지상중계
- ③ 주요장점 서면인터뷰

제15대 총장후보 추천선거 입후보자들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지난달 말부터 배포된 정책자료집이 전부다. 자료집도 그나마 교수·직원에게만 배포돼 학생의 경우 총장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다. 차기 총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불교병원 개원·운영
공통적으로 불교병원의 조속한 개원과 환자 경영을 약속하고 있다. 홍치유 후보는 개원까지의 과정에

'총장의 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최근 경향은 교육자적 자질과 함께 학교 전반을 꿰뚫는 운영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요구다. 때문에 총장후보 추천선거는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통해 학교 운영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내 구성원 역시 총장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공약을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분석한다.

대해 "손익분기점을 고려해 양·한 방 협정 200병상을 우선 개원하고 점진적으로 1천 병상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기삼 후보는 "의료계·경영 전문기법들의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점진적·순차적 개원 등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조 후보와 조희영 후보는 운영방안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 후보는 성인병·치매 치료 전문병원 등 특성화 전략을 세워 불교병원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며, 조 후보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힘쓰고 의료시스템의 첨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부실화 대책
후보들은 대부분 학부제 도입에 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응책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홍기삼 후보는 화교별 의견

을 존중해 현 학부제 존속여부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병조 후보와 홍치유 후보는 부분과과제를 도입해 현 학부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일산캠퍼스에 기숙사를 신축해 신입생들을 수용하고 교양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희영 후보는 학생선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의사결정의 민주화
현재 총장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조 후보와 홍기삼 후보는 서울캠퍼스에 교육(연구)부총장과 행정(재정)부총장을 따로 두어 해당 영역별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희영 후보는 총장의 권한을 대학원과 단과대에 이양해 분권화를 강화하고, 독립채산제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홍치유 후보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 및 예산공개 등을 통해 총장의 독선과 독주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행정적인 제도 신설 이외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 처우개선
후보 모두 교수들의 복직향상이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급여 인상, 교수책임시간 하향조정, 연구년 확대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수업적평가제에 대해 △정량평가 중심 △연구부분 비중 △평가방법의 획일화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직원처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제시하지 않아 유세 자리에서 직원노조의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 2면으로 이어짐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총장선거 후보자 합동유세

오는 6일 중강당 ... 교수·직원·학생 질의 예정

제15대 총장후보 추천 입후보자 1차 합동 유세가 오는 6일 오후 3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유세는 후보자 정책발표에 이어 교수·직원 각 2명과 학부·대학원생 각 1명이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학내 주체들이 공개적으로 총장선거 입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첫 자리이며 후보자들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진철(정치외교학) 교수회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일(5일)까지 답변시간 규정 등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확정해 질의·응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지부장=

강형석)는 조직운영 등 행정부부와 관련된 질의를 준비중이다. 김규환 직원노조 사무국장은 "민약 이날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각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 선거 전까지 후보자 검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 총학생회=등책협 구성 등 학내민주화를 위한 방안과 제3캠퍼스 구체적 건립 계획 △대학원 총학생회=연구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희정(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정책집에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부족한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캠퍼스에서 열리는 2차 합동유세는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이에 앞서 오후 1시 경주

부총장 선거유세가 열린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경주캠퍼스 부총장후보 추천선거 입후보자는 △기호1번=김진철(국어국문학) △기호2번=최상범(조경학) △기호3번=김길웅(고고미술사학) 교수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교수회가 동국학원 재단이사회에 보낸 '총장후보 추천 선거일정과 입후보자 명단'에 대해 이사회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정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윤리문화학) 교수회장은 "이번 선거는 총장 선임이 아닌 총장 후보자 선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100만인의 힘 ... 여중생 살인 규탄 8차 범국민 대회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명에 참여한 100만인의 힘을 모아 끝까지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일(5일) 100만인 서명 톨파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원총선거 사상 첫 경선

신병삼·남궁선 조 - 배근호·유철주 조 출마

2003년도 대학원 총학생회 입후보자 등록 결과 대학원 학생회 최초로 경선이 치러진다. 각 후보자와 구호·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호 1번=신병삼(불교학과 박사과정) △구호=왕의적인 공동체, 함께하는 학생회 △공약=국내외 대학원과 학술교류 증

대, 신축 도서관 내 공간활용 ▲기호 2번=배근호(정치학과 석사과정) · 유철주(사회학과 석사과정) △구호=1500 원우들과 함께 하는 학문공동체 △공약=학사 행정 원우 참여, 대학원신문사, 전산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발전 등이다. 투표는 오는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2003학년 정시모집 확정

전면 인터넷 접수·건축학전공 분리 모집

200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이 확정됐다. 이번 정시모집은 오는 12월 10일부터 4일간 인터넷 접수(www.uway.com www.apply114.com www.dongguk.edu)만 실시한다.

| 전형 | 내용 | 일지 |
|----|--------------------|--|
| 가군 |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 12. 17(화) ~ 12. 21(토) 12. 30(월) 예정 |
| 나군 | 논술, 면접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 2003. 1. 7(화) 2003. 1. 7(화) ~ 1. 11(토) 2003. 1. 20(월) 예정 |
| 다군 |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 2003. 1. 21(화) ~ 1. 25(토) 2003. 1. 29(수) 예정 |

변경된 모집단위를 살펴보면 문과대학이 어문학부로, 건축학 전공을 공과대학 II로 분리 모집한다. 또한 이번 모집부터 나군만 실시한 면접고사가 폐지됐다.

3면 송석구 총장 8년 평가 ② 연구분야

보리소

거짓말

어제 거짓말을 했다. 날씨가 추워지자 찬한 도반이 모자를 짜서 가져왔다. 모자가 없지 않으나 그 우정이 고마웠다. 허나 모자가 작아서 머리에 끼웠다. 그런데도 어쩔 이렇게 잘 맞느냐고 기쁜 얼굴을 했다. 불교의 오계(五戒)에 불망어(不妄語)가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탈무드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미 사버린 물건을 놓고 의견을 구해왔을 때는 실명 그것이 나빠도 훌륭하다는 거짓말을 해도 좋고, 친구가 결

혼했을 때에는 반드시 부인이 대안한 미인이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 쪽에서는 조작했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술안주 삼다가도 실제로 한 정치인이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을 받는 순간 그날로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선진국의 유권자들이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 사이에는 유권자도 겁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무슨 특권인 양 여기는 기이한 풍조가 일고 있다. 앞으로 크기는 대통령 선거, 작게는 우리 학교 총장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목자의 관인팔법(觀人八法)을 빌려서라도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첫째가 권력이나 명예를 갖기에 어울릴 만큼 위엄이 있고 의연한가하는 '위(威)'. 둘째가 그릇이 얼마나 큰가하는 '후(厚)'. 셋째가 마음씨가 얼마나 곧고 순고한가하는 '정

(淸)', 그리고 넷째가 자기 신념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강한 기골을 갖고 있는가하는 '고(古)'이다.

한편 기피해야할 인물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편협한 성품을 가진 '고(孤)'와 몸집이 빈약하고 큰 일을 할만한 활력이 부족한 '박(薄)'과 인상이 험상궂거나 눈매가 뽀뽀처럼 앙칼진 '악(惡)', 그리고 언행에 품위가 없고 경박스러운 '속(俗)'이 그것이다.

장계환
불교대 불교학과

한국 가시문학의 주석... 오는 8일 다향관 세미나실

한국문학연구소(소장=임기중·국어국문학)가 '한국 가시문학의 주석과 그 정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오는 8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연구한 가시작품 수집·인력과 주석작업에 대한 현황보고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1학기 교수초빙 내달 9일부터 3일간 접수

2003년도 1학기 교수초빙 접수가 다음달 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서울·경주캠퍼스 총 65명을 선발하는 이번 교수초빙 접수는 본교 인사관리팀에 직접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본사사령

◇ 임 정기자
▲ 최우석(불교대1)
- 이상 11월 4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11월 6일! 동국의 4년이 보인다

오는 6일 오후 3시 본관 중강당에서 총장 후보자 선거유세가 진행됩니다. 제15대 총장선거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보세요.

△1부 : 후보자 정책발표
△2부 : 교수·직원·학생 및 방청객 질의응답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8면 만화, 대중문화 속으로

최근 들어 만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영역에 응용되고 있다. 이에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만화를 재조명한다.

4면 미디어선거의 현주소

을 대선에 언론매체가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해 본다.

5면 '정치·미디어 권력' 포럼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증대한다.

법대, 리모델링 후 중도 1층 이전 요구

전공수업 거부·도서신관 점거

학교 “공간배치 논의 이르다” ... 점거 장기화 될 듯



지난 달 29일 법대 학생회가 도서신관을 점거했다.

법대 학생회(회장=김문진·법4)가 지난달 29일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후 중앙도서관 1층으로 이전 보장’을 요구하며 전공 수업거부와 도서신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개 대학 법대의 공간, 교수 현황을 조사해 대자보, 자료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전 공간에 대해 법대학생회는 현실적으로 도서관 밖에 없다고 판단, 지난 7월 조용길(불교학) 도서

관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후 1층 이전을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도서신관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 리모델링 후 중도의 공간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공간 배치 위원회는 보통 공사가 끝나기 약 5개월 전 구성된다”며 “공사 시작 날짜도 결정되지 않은 현 중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대 학생회는 지난달 29일 비상총회에서 △전공수업 무기한 거부 △신속도서관 무기한 점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문진 법대 학생회장은 “학교측에

서 이전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아 점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후 이후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간 배치는 여러 집단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중요한 정책사안이기 때문에 현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중도 공간 배치가 차기 총장 임기 중에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대의 전공 수업거부와 점거농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석 기자 yearn@dongguk.edu

35대 총대 당선자 임수욱(화공3)

시행세칙 구체화로 명확한 감사



- 현재 총대의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 대부분 단위가 감사 시행세칙이 모호하고 총대의원회와 의사소통이 부족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열릴 예정인 대의원 총회에서 시행세칙을 구체화하고 감사 전 각 단위 사무국장에게 예산신청·집행 등에 대한 사전교양을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그동안 후보자들이 선거 후 홍보물과 선거유세에 사용한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이 의혹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집 등 선거유인물을 늘려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 내년 총대의원회 계획은,

= 각 단과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소속 단과대를 자체 감사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계 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감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부를 공개인선해 총대의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는데 노력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회전무대

개인 총전기

O...요즘 총학생회는 학내 곳곳으로부터 출동요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얼마 전 추가 설치한 핸드폰무료충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를 담당하는 총학생회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충전하지 않으면 달걀가 계속 열려 있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충전기 독점사용 비법, 해답은 비밀번호 누르기에 있다.”

천일동안

O...중앙도서관에는 오래된 신문물 저장해 놓은 마이크로 필름의 내용을 프린트할 수 없어 난감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데.

이유인즉 프린트하는 기계가 오래돼 수리가 쉽지 않자 3년 전부터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뒀기 때문이라고.

마이크로 필름 대부분이 한자어가 많은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프린트하지 않고 보기 어렵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오래된 자료만 큼이나 어려운 학교 예산용도 알 아내기(?)”

흔적

O...본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교수 소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퇴임 등의 이유로 현재 본교에 재직하지 않은 교수의 소개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 이라고.

이는 각 학과에서 변경된 사실을 정보관리실에 알리지 않아 학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교수님! 당신은 떠났어도 자취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합니다.”

안전한 네트

O...요즘 신속도서관 공사지역에 세워둔 안전표지판이 종종 사라져 공사관계자들이 당황해한다는데.

이유인즉 학생들이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할 때 네트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이 공사장을 개방한 것으로 착각하고 합부로 지나가다 공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가 왓, “안전표지판이 있어야 할 자리, 안전불감증이 존재(!?)”

단과대 행사

철학과
8일=서적 '우리의 시대'에 대한 강연 및 논문발표 (학림관 소강당 오후6시)
9일=영화 'I am Sam' 상영 (명진관 104호 오후2시)

영어중문과
4일=△원어노래자랑(학림관 소강당 오후3시) △영화 '철혈쌍용' '햇빛찬란한 날들' 상영(오후1시, 학림관 소강당) △현문화 '현대 중국의 이해' 강연회(오후5시30분과 5일 오후5시, 학림관 소강당)
5일=△중국어서적 전시회(오전11시, 불상 앞) △연극 '버스정류장' 공연(오후3시와 7시, 학림관 소강당)

국제통상학과
7일=마당극 '사회전반에 관한 문제'를 뉴스형식으로 풀어간다 불상 앞

8일=학술심포지엄 'FTA의 체결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 문화관 1층 세미나실

9일=무악연의 밤 문화관 그림 식당

미술학부 졸업전시회
일시=13일부터 19일까지
장소=문화관 갤러리동국, 인사동 덕원 미술관



새날을 위해 ... 민속극 연구회 '불' (회장=김민희·가교2)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틀 간 학생회관 앞에서 마당극을 열었다. '불'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성하자 라는 주제로 열린 공연에서 학생들과 공연자는 하나가 돼 행사를 즐겼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 1면에서 이어짐

정책자료집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수 중심'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이나 대대적인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누락돼 있는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구체적인 이행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추상적인 '구호성' 공약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는 6일 열리는 1차 합동 유세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 학생 3명 연행 의문사범 개정시위 도중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의문사범 개정·강화를 위한 자 전자 투어단'에 참가했던 본교 학생 세 명이 연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은 △생자대 학생회장 산용화(생명자원산업유통3) △사범대 부학생회장 신승원(수교4) △김은주(국교4)이다.

이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수사 경찰서와 강도 경찰서로 나뉘어 구금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지난 1일과 2일 각 경찰서에 방문을 진행해 행사 참가자 연행의 부당함에 항의했다.

학사일정 내년부터 16주 재개편 마지막주 '보강 실시' 위한 대책마련

총학생회가 지난달 29일 학교측과 면담한 결과 다음 학기부터 학사일정을 16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총학생회와 학교측은 마지막 주를 '보강을 위한 주'로 정하고 교원업적평가에 이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학협) 구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이 진행됐다. 이번 준비모임에서 총학생회는 준비한 세칙을 제시했으며 학생회에서 논의한 등학협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학교측은 “등학협이 등록금

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등학협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은 다음주로 예정돼 있다.

졸업앨범 추가·환불

졸준위는 오늘(4일)부터 15일까지 졸업앨범비 환불 및 앨범 추가신청을 받는다. 원하는 학생은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200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공고

- 개설대상 교과목**
2002학년도 1학기·2학기 개설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요건 충족 교과목 (단, 실험·실습 및 사이버강좌 제외)
-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 2002. 12. 9(월) ~ 2002. 12. 31(화)
나. 매주 토요일·일요일, 12. 19(대선), 25(성탄절)은 수업 미 실시
다. 스키(2박 3일) - 12. 12(목) ~ 14(토)
-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직과목 : 7명 이상 나. 교양과목 : 10명 이상
-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200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금 산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 시 반영됨
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재수강신청원(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에서 출력가능)을 반드시 소속과대학 교과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 가능
- 수강신청**
가. 기간 : 2002. 11. 5(화) ~ 11. 7(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 서울캠퍼스
(1) 일시 : 11. 5(화) 오전 09:00 부터 11. 7(목) 24:00까지
(2) 장소 : 교내 자유 실습실
▶ 경주캠퍼스
(1) 일시 : 11. 26(화)·27(수)·28(목)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2) 장소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02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취소 및 정정기간 [2002. 11. 12(화) ~ 11. 13(수)] 외에 추가수강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신속히 수강신청.
- 사전에 2002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의 과목 참조와 더불어 수강신청 시 1학기 개설되었던 과목을 조회하여 수강신청
- 학생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마. 수강료 : (1) 개설 교과목 1학점 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70,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기부담
-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가. 기간 : 2002. 11. 12(화) ~ 11. 13(수), 2일간
나. 유의사항 : (1) 최초 수강신청(11. 5~7)결과에 의하여 개설예정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반드시 폐강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 바람 (2) 6학점 이내에서 추가수강신청이 가능함
- 수강신청 장소**

| 건물명 | 실습실명 | 개방시간 |
|------------|-----------|---------------|
| 명진관2층 | A2 | 09:00 - 22:30 |
| 동국관M동 1층 | Cyberland | 09:00 - 22:30 |
| | BSC7 | 09:00 - 22:30 |
| 동국관M동 5층 | BSC10 | 09:00 - 22:30 |
| 정보문화관M동 5층 | ESC4 | 09:00 - 22:30 |
| 정보문화관M동 2층 | ESC5 | 09:00 - 22:30 |
| 학림관 3층 | JE | 09:00 - 22:30 |
| 중앙도서관 1층 | 정보검색실 | 09:00 - 17:00 |
| 해화관 2층 | CAMPUS# | 09:00 - 22:00 |

-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표** : 2002. 11. 26(화) 예정
- 수업료 납부**
가. 기간 : 2002. 11. 18(월) ~ 11. 22(목), 5일간.
나. 방법 : (1) 고지서 출력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수납은행 : 제일은행 전 지점 (수납모집: 제일은행 동국대 출점소 Tel. 02-2260-8990)
- 유의사항
(1)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신청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공고 (11월 26일 공고 예정)를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어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실(2260-3043)로 문의 바람

2002학년도 제2학기 명사초청특강

참다운 종교(宗敎)란 무엇인가?

만행

■ 일시 : 2002. 11. 13.(수) 오후4시~7시
■ 장소 : 본관 중강당
■ 강사 : 현각 스님

주요약력

- ▶ 1964년 미국 뉴저지주의 천주교 집안에서 출생
- ▶ 미국 예일대학에서 철학 및 문학 전공
-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및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전공
- ▶ 1992년 9월 7일 출가
- ▶ 미국 소재 한국 불교교단 '흥법원' 주지
- ▶ 경북 영주 소재 '현정사' 주지

주요저(역)서

- ▶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999, 열림원)
- ▶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2001, 열림원)

교육실습동의서 접수

2003학년도 교육실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실습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03년 8월 졸업 및 2004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실습기간** : 2003. 4. 7(월) ~ 5. 3(토) 4주간
- 관련서류** : 가. 교육실습협조 공문 나. 교육실습 동의서(소정양식)
- 교육실습동의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2.10.15(화) ~ 11. 15(금)
- 교부처** : 사범대학 교학과 (소속대학교교과과 또는 학교홈페이지 여론광장 → 주제별게시판 → 교직과정에서 출력가능)
- 동의서 제출절차**
소속교과과에서 관련서류 교부 → 모교나 교육실습희망학교 방문 → 연구주임선생님이나 교생담당선생님께 교육실습 공문과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동의서를 제출 → 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날인을 받은 → 실습동의서를 사범대학 교학과에 제출 →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 2003년 3월 0.T일시 → 2003년 4월에 교육실습
- 제출처** : 사범대학 교학과
- 유의사항**
가. 사범대학생 중 본교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에 문의 및 접수바람
나.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중 본교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범대학 교학과로 문의바람.
다. 교육실습은 전반기(4월중)에만 실시하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 실습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라. 교육실습시 실습교과목은 주전공(제1전공) 표시과목으로 함.



- ① 교육분야
- ② 연구분야
- ③ 경영분야
- ④ 재단과의 관계·학내민주화
- ⑤ 간담회·차기 총장에게 바란다.

송석구 총장 8년 평가와 과제

송석구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마무리된다. 지난 94년 교수·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재단에 추천된 송 총장은 8년 재단의 연임결정을 거쳐 8년 동안 불교병의 건립추진, 학부제 도입, 행정조직 개편 등 많은 변화를 주도했다. 본사는 총 5회에 걸쳐 송 총장 재임 8년을 분야별로 평가해 차기 총장에게 남겨진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연구하는 교수' 풍토 조성에 기여

"연구를 '해이만' 하는 엄격한 제도 도입으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자극시키고 그에 따른 연구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본다."

공대의 한 교수 말처럼, 송석구 총장 취임 이후 연구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변모로 볼 때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가시적인 변화는 연구지원 부서의 확대·개편이다. 지난 95년 교무처 내 학술부가 연구교류처로 독립하면서 체계적인 연구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또한 96년에는 교원업적평가제를 타대학에 앞서 도입했다. 연구업적 결과에 따른 보상과 연구비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이와 함께 각종 교내 연구비 지원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교수들의 논문 발표, 저서 발간 등 연구실적이 95.6년 이전에 비해 향상됐고, 이는 실제로 연구가 활성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가제 도입으로 연구활성화

교원업적평가제 도입이 교수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승진·재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적평가에 논문발표, 저서발간 등 연구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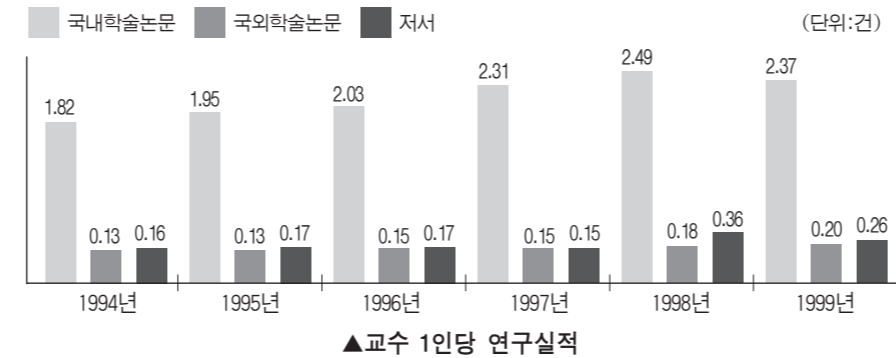
년 신설된 저서·번역 연구비와 신입교원 연구비 지원 제도는 기존의 논문계재연구비 지원 등 각종 교내 연구비 지원과 연구년 제도와 함께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유도했다.

특히 올해부터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1편 당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SCI급 논문계재연구비 인상 조정' 시행도 보기 드문 파격적인 연구지원책으로 교수들의 연구 의욕 고취에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적평가제가 각 학문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공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다. 논문의 '질'이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되고 있지만 학문의 특성에 따라 게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양에 치중된 평가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문계열의 한 교수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을수록, 저서를 많이 발간할수록 평가점수가 올라가는데 이는 단순히 '양'에 의존하는 평가로 '질'을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몇 차례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부 부를 수정, 보완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연구업적평가에서 계열 간 특성을 고려한 상대적 평가 기준과 질적 평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다양한 평가방법 마련해야

이외에 매년 전임교원 재직 교수의 5%를 선정하는 연구년 제도는 타학과와 비교해 볼 때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주대 등 여러 대학이 연구년 최대 인원수를 14%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학교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 연구년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좀 더 '열린' 연구년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교는 지난 99년 '불교문화상사 교육·연구단'이 BK21 사업단 중 하나로 선정됐다. BK21에 대한 평가는 차차해

두고,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연차평가에서 본교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 기여도 미흡 등으로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연구단 조직개편 등의 시행으로 지난 학기 진행된 중간평가에서 인문사회분야 2위로 도약, 1천 6백여 만원의 지원금액을 받게 됐다. 같은 분야에서 서울대 숭실대 등의 4개 사업단이 중도 지원 탈락한 점에서 볼 때 본교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중간평가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두었고, 2004년에 실시될 2차 중간평가는 실질적인 연구사업 성과에 맞출 것"이라고 밝힌 교육부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발전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라 기자
hviollet@dongguk.edu

장기적 발전계획 필요

학내연구소

94년 본교 서울캠퍼스는 25개의 연구소가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송 총장은 취임 후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25개 연구소를 6개 연구원 및 4개 전문연구소로 통·폐합했다. 또한 연구원을 세분화하고 인원을 보충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소 통·폐합은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94년과 95년의 연구 실적과 연구비 확보실적이 각각 22건 약 6억 4천만 원, 41건 약 8억 원으로 조금 나아진 정도였다.

송 총장은 98년에 사전예고하고 2000년 시행한 연구소 실사 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연구소를 △연구활동 △대의협력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한편 A부터 D까지의 등급 중 C와 D등급에는 연구비 지원을 감액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역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제 본교는 연구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착안, 연구소 신설 후 2년 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인큐베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 총장 재임 중 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연구 실적은 여전히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개별 연구소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는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연구 성과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다.

공간문제 새로운 '숙제'

산학연 협동

송석구 총장 임기 8년 동안의 산학연 협동은 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4년도 산학연연구제수가 15개, 2억 7천여 만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취임 직후인 95년도는 과제수 94개에 24억 여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이와 같은 상승은 지난 9월 현재에도 120개 과제, 96억 여 원 규모의 산학연 협동이 이뤄지고 있을 만큼 순조로운 증가가 아니다.

이는 재정 지원 강화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다. 95년부터 간접비 명목의

지원이나 연구준비비 등을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교수에게 지원했다. 또한 외부 프로젝트수주율이 높은 교수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렇게 산학연 협동이 증가하면서 본교의 고질적인 공간 부족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연구처 김철석 연구지원팀장은 "기업체 등에서 산학연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구공간을 요구할 경우 공간이 없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공간 문제는 본교가 연구 분야에서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지난 호 '지난 해와 2000년 부터 교원을 하라'를 '96년 부터 4년간 교원을 하라'으로 정정합니다.

사설

총장선거, 정책선거로 이뤄내야

비야흐로 선거철이다. 밖으로는 대통령선거, 안으로는 총장선거, 학생회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대선에서는 여론과 달리 방송·언론매체와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도가 클 것으로 예상돼 '미디어 선거'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디어 선거는 그동안 지역감정, 연고주의, 상대 후보자 비방 등으로 점철되던 기존의 선거풍토에서 후보자 대결과 지지도가 후보들의 정책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4년 간 본교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총장선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번 총장선거는 지난 선거와 달리 총장선출방식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합치하고 4명의 총장후보가 나오기까지 비교적 순탄한 과정을 밟아왔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이행하려는 후보들의 자질은 믿을 만한지를 검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인 불교병원 개원, 학내 공간문제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과 학교의 장밋빛 비전이 과연 동국의 미래에 청사진이 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다. 단기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있다면 철저히 따져 물어 허구성을 밝혀내고 모두의 공감대를 얻을 만큼 진실로 동국발전에 도움이 될 정책이라면 후보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선 이후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지켜보아야 하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6일로 예정된 후보자 선거유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후보 자신의 정책발표와 참여자의 질의로 이어지는 이 자리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와 질문자 모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에게는 본교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불어 동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정책선거의 가능성은 미디어 선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총장 선거가 교수사회의 학연, 지연에 의한 편가르기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정책검증과 학내 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유세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동국발전의 새 전기를 맞이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환, 부주장 장영길,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057

동약로

비판과 비방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편이다!’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와 총대의원회 선거가 시작되기 얼마 전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석중·수교4, 이하 중선위)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사법대, 법대, 예술대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이 자주계열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편들기'라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중선위에 대한 신뢰를 문제삼는 의견도 있다. 몇몇 사람들은 새터 이면계약 사건 등 학생회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을 예로 들며 "중선위는 이러한 학생회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은 설득력이 없는 단순한 비방으로 판단된다.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는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단과대 대의원장과 총대의원회 집행부로부터 구성된 것과 달리 올해 처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편들기'라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로. 선거 시행 세칙 상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는 각 단위 선관위의 자체일정으로 진행되 이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상선(국교4) 중선위원은 "음해성 비방 글로 인해 선관위원이 학생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신뢰가 깨질 경우 선거의 의미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선 선관위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이 중요하다.

하지만 근거를 갖춘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단순한 음해성 비방은 오히려 선거관리위원들의 활동의지를 꺾을 수 있다.

비판과 비방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단과대 학생회와 총학생회 선거는 건전한 비판 속에서 진행되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미디어선거, 어디까지 왔나?

빠르게 도입됐지만 '성장'은 미흡 ... 유권자·정책검증 중심으로

돈 안드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검증의... 미디어 선거를 수식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후보자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책을 검증 받는 선거가 바로 미디어 선거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선거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97년 즈음. 후보자들의 합동토론회와 관련한 선거법이 처음 도입되던 때다. 경희대 김민진(국제관계학) 교수는 "97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군중동원선거, 돈 선거에 대한 전 사회적 반성이 미디어 선거의 정착을 촉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가 일찍 만들어진 것과 달리 미디어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특히 연말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올해의 경우 '미디어 선거의 해'로 기대를 모았지만 미디어 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논의가 무산된 데다, 후보 초청 토론회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후보 방송 토론회, 언론매체들의 각종 보도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 언론매체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유권자가 중심이 될 수 있을까 =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각 후보에게 유권자가 원하는 의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TV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유권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보다는 후보의 신상에 대한 토론회가 많다. 이와 관련해 순현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일반인들로 이루어진 토론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를 감시하는 등 유권자 스스로 유권자 중심의 미디어 선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검증이 충실하게 이루어질까 = 정책검증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방송토론회다. 특히 정책검증의 '질'과 관련해 토론방식에 문제제기가 많다.

상지대 정대화(정치학) 교수는 현재 후보 1인과 패널이 국정전반을 토론하는 '집단 기자회견식' 토론에서는 "정치인들 입맛에 맞는 추상적인 문답만 오가고 있다"며 한가지 주제로만 토론하는 쟁점형 토론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패널들이 시간 때문에 쟁점을 덮어버려 심층적인 검증이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합동토론거부자들이 다른 후보와 벌이는 정책대결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미디어선거 및 선거공영제를 위해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늑장국회'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 아직도 '은근한' 편파보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연론 시민운동연합의 신문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달간 일부 신문들은 현대상선 대북 지원, 병역비리, 북일 수교 보도 등에서 특정

정당의 '입'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김대업 씨의 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증조사 결과를

두고 "병풍은 허풍이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발족한 2002 미디어선거국민연대는 이같은 미디어의 공정성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 인터뷰

“올 대선에는 인터넷 언론이 ‘사고’칩니다!”



이들이 있다. 인터넷 언론매체 '오마이 뉴스'의 정운현 편집국장을 만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번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이 유권자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가.

이번 대선이 올 바른 미디어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인터넷 언론이 기존 매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미디어 선거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는

= 인터넷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텔레비전만큼이나 보편적이고 친숙한 존재다.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 못지 않게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 결국 인터넷이 선도하는 선거문화는 새로운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선거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것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갖는지.

= 인터넷미디어의 장점 중 하나가 수용자 또한 주체가 된다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이 네티즌들의 유권자의식을 고양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이 돈도, 조직도, 많은 인력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인프라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음은 물론이다.

- 이번 대선을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기존매체와 특별히 다른 방식을 추구할 생각은 없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회 내용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선거가 후보자들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인터넷은 기성 미디어에 비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완벽한 후보검증이 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은 매체의 특성상 기성매체가 놓친 부분을 대신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지난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총련 합법화 위한 토론회

“폭넓은 지지로 이적규정 풀자”

각 단체 합법화 위한 연대논의 이어져

‘한총련 합법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73주년 학생의 날 기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가 한총련,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각 학생·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의원 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회 내에서도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총련 변호를 맡아온 김인회, 장경욱 변호사는 한총련 변론내용을 담은 ‘한총련 변론자료집’ 발간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학생 대토론회가 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각 토론자들은 한총련 합법화 지지의사를 밝히고 합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태홍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준) 위원장(이하 민노동 학생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한총련과 비슷한 강령을 가지고 나아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데 왜 한총련만 잡아가지느냐”며 이적단체 규정을 비판했다.

합법화 방안으로는 먼저 폭넓은 지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총련 대표로 나온 덕성여대 주지은 총학생회장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총련에 무관심한 만큼 먼저 이적규정의 부담성을 알리면서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티조선모임 '조선바로' 김수민 편집장은 한총련이 집단주의만 옹호하지 말고 개인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강령과 언어를 좀 더 순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법화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한총련, 전학협 등 각 학생단체들의 새로운 연대기구 건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학생운동동진영 내에 연대기구를 건설하자는 의견은 얼마 전 ‘한국민주대학생연합’(가칭 민학협)을 함께 만들자는 한총련의 제안에 따라 최근 학생운동동진영 내에서 활발히 논의중이다. 전학협 등 다른 단체들도 연대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법에는 조금씩 이견을 보였다. 이날 연대기구에 대한 논의는 “제안과 방침만 있을 뿐 건설경로가 구체적이지 못해 학생단체들 간의 ‘동상이몽’인 듯하다”는 강위원 집행국장의 말로 일단락 됐다.

한총련 합법화는 지난 97년 이적규정 판결 때부터 논의돼 왔지만 대중들의 무관심과 학생들간의 협력부족으로 언제나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이와 같은 토론이 지속돼 학생들이 힘을 모은다면 한총련 합법화는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정치권력과 미디어권력’ 포럼

구조와 일상성 개혁으로 언론 타락 막아야

미디어 권력화 현상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권위와 지도력이 무너진 이른바 ‘권위의 공백’이라는 맥락에서 생겨난 구조적 현상



‘라디오가 없었다면 히틀러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케네디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장학생 김영삼은 신문이 없었다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문구는 권력과 미디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미디어 권력이 정치권력을 창출한다고 할 만큼 미디어 자체가 권력집단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룡처럼 비대해진 미디어 권력 앞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신문로 아트큐브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 제2회 대화영화제 개막 포럼에서 정치권력과 미디어권력의 상호 관계를 규명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는 ‘정치권력과 미디어’를,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임영호 교수는 ‘미디어의 권력화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창룡 교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올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언론 관련문건을 통해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언론을 장악해 정권유지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98년 새정부 언론정책 추진계획 등 공개된 주요언론문건 사건만

5년간 7번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권력이 얼마나 언론을 필요로 하는가를 짐작케 한다”며 “이미 정치권력은 언론을 필요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런 방안에는 언론인 스스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이러한 문건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획득의 주요수단으로 언론의 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언론통제 방안엔 언론인 스스로가 가담하는 모순된 반언론윤리적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력은 언론의 독립이나 중립성, 공정성, 언론 자유를 입으로는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과장과 축소, 왜곡을 기대하며 심지어 법과 제도까지도 제거나 협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국가의 주요방송 및 언론정책이 뚜렷한 원칙과 타당성과 정당성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언론의 보도 태도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한 임영호 교수는 “미디어 권력화 현상을 도덕적인 잣대에 따라 일부 언론인이나 언론사의 타락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화 현상은 사건이나 인물보다는 사건의 구조적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디어 권력화 현상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권위와 지도력이 모두 무너진 이른바 ‘권위의 공백’이라는 맥락에서 생겨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프랑수아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을 통해 미디어 권력화의 내부 역학에 대해 설명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어떤 집단의 사회적 위상은 이들이 보유한 권력 자원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언론사의 위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자본의 규모인 것과 같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신문업계에서 발행부수가 경제자본의 축적 정도를 가능하는 척도가 되며, 이는 해당 신문의 정치적 위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주요 언론사들이 단기 수익과 상관없이 부수 순위에 극도로 집착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언론사가 정상적인 존재방식에서 벗어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사회자본을 동원해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특권을 확보하는데 뜻을 둔다면 언론의 타락은 피할 수 없다”며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직업관행과 사고방식, 일상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telleme@dongguk.edu



임기중 교수
가사문학이야기 (4)

여성가사와 새로운 눈뜨기

한국 여성들의 새로운 자각은 여성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의 삶이 가장 억압된 조선조 후기에 두드러진다.

조선조 후기는 가계의 전승과 재산의 상속 등이 점점 남성 중심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는 여성들의 생활공간을 크게 제약하면서 그들의 의식의 변화를 촉발시키게 된다.

한편 여성들에게는 생활공간이 제한되고 노동이 가중되며 관습적이며 제도적인 역할이 점점 강화된다. 이렇게 되자 여성들은 주어진 사회제도 속에 실존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자기들의 영토를 새롭게 확장하려는 자각이 일어난다.

그러한 생각이 드러나 있는 대표적 기록물이 한글로 쓴 여성가사이다. 이것이 곧 ‘규방가사’라고 통칭되는 국문학의 한 장르이다. 따라서 여성가사에는 탄식과 자존이 있고 피동과 능동이 있으며, 슬픔과 기쁨이 있고 한계상황과 한계상황의 극복이 있다.

특히 17세기 후반기부터는 내외의 구분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여성과 남성은 성장과정부터 생활공간과 교육내용이 달라진다. 딸은 어머니와 더불어 규방에서 살림살이와 손님을 맞고 제사를 모시는 등 예절을 배우며, 아들은 사람체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학문을 닦고 군자의 도리를 익힌다.

이러한 생활공간의 분리와 교육내용의 차별화는 결국 삶의 궤적을 달리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사고가 안동문화권과 호남문화권에 존재하는 입구자형으로 된 집 안채를 탄생시킨다. 여성의 유희와 여성의 금고 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여성가사에 많이 보이는 ‘여자는 십세되면 규문을 굳게닫고’라는 표현이 곧 그런 금고의 현주소다. 이렇게 되자 여성들은 가문과 촌락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새로운 대응논리를 모색한다.

그러한 도구가 곧 여성가사다. 그들은 여성가사의 창작과 읽기를 통해서 집단적 대응논리를 창출한다.

가사를 통해 ‘옛법이 괴이하다 여필종부 무슨 일인가’나 ‘부모님 후품자에 남녀차등 두었을까’라고 노래하면서 여필종부(女必從夫), 삼종지도(三從之道), 출가의외(出嫁外人)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강력한 비판을 가한다.

나아가서 가부장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개인적인 탄식의 정서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한국 여성들은 한글가사를 매체로 새로운 눈을 뜬다.

(지)
bluemi@dongguk.edu

21세기 지식인 사전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인간행동과 사회구조의 상호 영향을 강조한 ‘구조화 이론’, 좌우를 통합한 제3의 국면으로의 변화를 말한 ‘제3의 길’. 이는 모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65)에 의해 제시된 논리다.

193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기든스는 헐(Hull)대학에서 심리사회학을 전공, 런던정치경제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61년 이후 70년까지는 레스터대학, UCLA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72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회학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 사회이론 연구에 주력하며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사회학적 방법의 새로운 법칙’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등 많은 저작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세계화, 전통의 붕괴 등을 이유로 기존의 좌우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와 이를 더욱 구체화시킨 ‘제3의 길’에서 보여지는 기든스의 논리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반된다.

특히 좌파 진영 학자들은 제3의 길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라기보다 또다른 자본주의에 불과하고, 그의 용어로 굳어진 ‘닫힌 중도’ 역시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신문방송학과 학생세미나

매스미디어가 만든 환상

‘멀티플레이어’를 개자

사람들은 TV 드라마, 광고, 영화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쉽게 ‘멀티플레이어’를 접하게 된다. 요즘 전파를 타고 있는 한 드라마에도 춤, 노래 등 그야말로 ‘못하는 것이 없는’ 방송작가가 자신의 목표를 수월히 성취해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렇다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취지는 멀티플레이어가 개인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지난 30일 신문방송학과 학생회(학생회장=오명규·신방3)는 ‘R.U.MULTI’를 주제로 멀티플레이어와 매스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사회를 본 이준석(신방3) 군은 토론을 시작하며 “매스미디어 속 인물들은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이상향으로 제시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멀티플레이어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끔 만든다”고 꼬집었다.

박보라(신방2) 양은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일면에 대해 “문제는 미디어가 제시하는 공간과 현실 공간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라고 지적했다. 완벽하게 그려지는 미디어 속 인물이 일종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석일(신방2) 군은 “매스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즐거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라며 “매스미디어 역할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즉, 멀티플레이어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환상 혹은 동경 역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매스미디어를 접하게 되므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날 토론자들은 매스미디어가 제시한 멀티플레이어 모습이 현실의 모범으로 비취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토론을 마치며 매스미디어의 악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수용자들이 단순히 매스미디어가 제시한 멀티플레이어의 모습을 좇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맞는 이상향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
bluemi@dongguk.edu

소나기

대선후보, 정책은 없고 이미지만 있다(?)



△텔레비전이 대선에 이용되면서부터 이미지만 부각된 것 같다. 정책을 좀 더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듯.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를 할 때는 각 후보들의 지지세력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결국 그 지지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테니까. △이미지는 거품! 남북 7천만의 살길인 2000년 공동선언을 이행할 후보가 누구냐? △그들은 국민보다 제 잡난 맛에 사나보다. 남 헐뜯는 그대, 떠나라! △너들이 재발귀족을 알아? △원래 다 그런 거 아냐?? △우리는 상위 5%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 △내가 대통령 한다!! △기막힌 정책하나 열 이미지 안 부럽다. △어차피 공동으로 쇼 할건데 뭘. △대선은 대선 선거? △창사상, 노사모, 정외모의 공통점. 흑백논리 이미지용 조직. △바뀌, 바뀌, 후보들 다 바뀌. △정책 내세워 봐야 국민들 믿 안 믿을 거 뻔한데... △이미지라도 좋아야 애들도 밥 먹고 살지. △서민과 귀족의 정쟁. △이미지로 또 지역감정 생겼군. 영남은 회창, 호남은 무현 그럼 몸준은? △정치계는 시간이 흘러도 그놈의 자기 PR이 계속 유행하는군. 좆웃... △재발,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세요. △이에 아바타로 사이버 세계를 활보하지 그래? △이회창은 미국에 한국 팔아먹고, 노무현은 한국국민 모조리 거저 만들고, 정몽준은 한국정체성을 말살하지 않을까? △정책을 대통령이 쓰나? △정책은 없고, 이미지도 없고, 돈과 부패만 있네!! △정책이 이미지를 만들지 않나? △글쎄, 내가 보기에선 정책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다면 안좋은 이미지만 있을 뿐.

△정확한 공동으로 쇼 할건데 뭘. △대선은 대선 선거? △창사상, 노사모, 정외모의 공통점. 흑백논리 이미지용 조직. △바뀌, 바뀌, 후보들 다 바뀌. △정책 내세워 봐야 국민들 믿 안 믿을 거 뻔한데... △이미지라도 좋아야 애들도 밥 먹고 살지. △서민과 귀족의 정쟁. △이미지로 또 지역감정 생겼군. 영남은 회창, 호남은 무현 그럼 몸준은? △정치계는 시간이 흘러도 그놈의 자기 PR이 계속 유행하는군. 좆웃... △재발,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세요. △이에 아바타로 사이버 세계를 활보하지 그래? △이회창은 미국에 한국 팔아먹고, 노무현은 한국국민 모조리 거저 만들고, 정몽준은 한국정체성을 말살하지 않을까? △정책을 대통령이 쓰나? △정책은 없고, 이미지도 없고, 돈과 부패만 있네!! △정책이 이미지를 만들지 않나? △글쎄, 내가 보기에선 정책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다면 안좋은 이미지만 있을 뿐.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우리 귀여운 북극곰! 소진이 생일(11/9) 축하. -최씨 아저씨 △원준♡유진 100일 축하해요! -바람 △등등오빠! 21일 생일축하해요. 앞으로 더 멋진 오빠 되시길... △사법대 풍물패 아라녀리 친구들! 판굿 한마당 축하해요! -역교 쫄 △사법대 역교 01학년 귀여운 김선영아! 생일 축하해부러! △진민이, 은주 서로 사귀게 된 거 축하해! 오래 오래 사랑해라. -용행님 △가유, 공연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 한 한마당!! 즐거웠어요. -비글XX △신방과 학술제 잘했어요. 특히 보름 빛 나는 주연! -늬은이 △법대 학우들 수고가 많네요. 앞으로

98년 11월 이후 4년 여를 끌어오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지난달 24일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간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윈윈전략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준비 부족, 협상력 부재, 타결 후 피해 계층에 대한 대안의 부재 등으로 타결과 동시에 언론으로부터 강한 못매를 맞았다. 이 와중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출과 수입이 각각 6억달러, 2억달러 증가하여 4억달러 정도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 자료를 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협상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세가 일시에 무관세화 했을 때를 가정된 것에 불과하다. 이 발표 이후로 언론비판도 다소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한·칠레 협상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을 비롯 전체적 비판여론을 완전히 무마 하기는 역시 역부족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수출중심의 시장경제를 갖고 있거나, 산업구조상 무역이 불가피한 나라들이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와의 협정을 위해 무역상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



논단 송 동 호 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국장

FTA와 농가들

하고자 하는 경제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협상체결 이전 상대국의 산업이 자국과 상호 보완적인지,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육성할 산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행하게 된다. 또한 협상 체결이 제기될 국내 산업의 피해는 어떠한 것이며, 이를 보완할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와 함께 피해 계층을 포함한 국민적 설득

과 이해 조정 과정도 반드시 선행하게 된다. 결국 농민 계층을 비롯한 국내 국민전반의 한·칠레 협상에 대한 비판은 이상에서 제기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의 국가의무를 우리 정부가 방기한 데 따른 책임추궁이다.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류 수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과수를 포함한 농업부문의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지닌 칠레를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 지목한 것 자체가 실정이었다. 지난 수년간 농업계는 다양한 연

선거에 많은 관심은

지금 학내 곳곳에서는 단과대나 총학생회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한창 활발하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따금씩 둘러보면 학생들은 그런 것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비록 낮은 득표를 했어도 상대 후보보다 많은 표를 획득하면 대표가 된다. 그리고 그 후보가 대표가 되어서 학생회를 운영 하고 있을 때쯤,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나뉜다. '한총련이 우리랑 무슨 관계냐,

학술제, 축제로 만들자

요즘 학교정문을 들어서면 각종 학술제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각 학과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학문을 홍보하기 위해 학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제가 연구도 축제화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조명받기 전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학술제 논문 발표회, 초청 강연회, 세미나 등 정적인 활동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 비전문인에게 본래의 취지나 의미를 부여하

그속한 백제의 향기 느껴

울긋불긋 단풍이 우겨진 동양을 뒤로 하고 우리는 백제의 옛 땅으로 답사를 떠났다. 떠나기 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다. 사실 백제문화는 경주로 대표되는 신라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백제의 모습들을 보니 그간 내가 생각해 오던 것들이 하나의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관심이 부족할 뿐 백제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백제는 약 300여 년의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차원 높은 독특한 불교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이번 추계답사에서는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터, 수덕사, 마곡사 등을 돌아보았다. 흔적만 남은 사찰을 볼 때, 그리고 탐만 외로이 서있는 풍경을 볼 때 나는 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다. 우리는 옛 백제의 땅에서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백제의 드넓은 가을 하늘 아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하나 원을 세웠다. 부처님의 그속한 법(法)의 향기로 온누리가 취하게 해달라고, 불기 2546년 10월의 추억은 하나의 기억으로 우리를 가슴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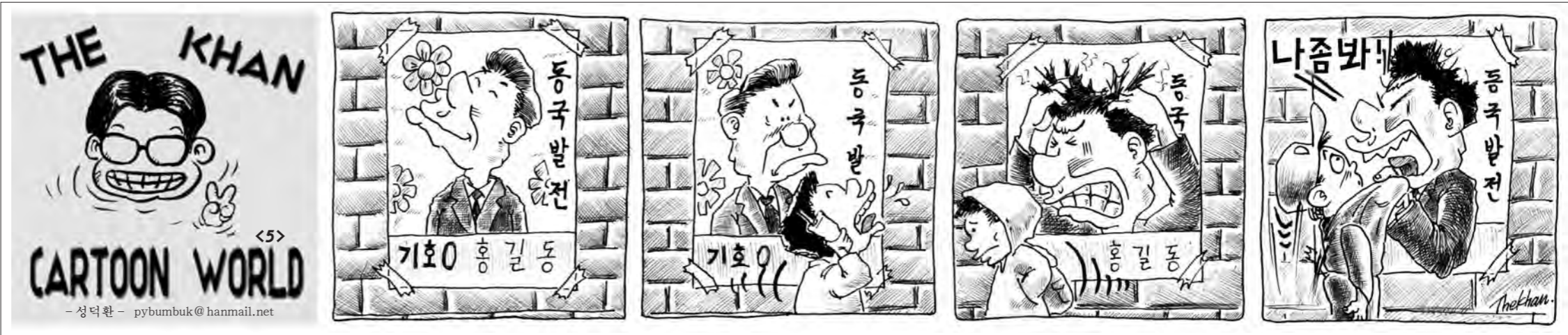
강건욱 (불교대)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등책협 기획 시의적절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각 단과대 학생회선거등록기간이 끝나고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였다. '주제기획'으로 다룬 등록목격정렬회의에 대한 기사는 내년 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책반영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기초마다 반복되는 등록목격정렬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기사였다. 학술문의 '경전에

편중된 시각 수정 필요

경주관 도서관 24시간 개방에 대한 기사는 동대신문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편중된 시각과 기사 흐름에 위배되는 내용 제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시험기간 이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내용은 하루의 통계를 마치 항상 그대로 것처럼 일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은 기사의 전체 흐름 상 불필요한 언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김현석 (불교문화대 불교이동2)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Table with columns for Seoul Campus (서울캠) and Gyeongju Campus (경주캠), and rows for various student organizations like Dongguk Student Council (동국관), Student Council (상록원), Faculty (교직원), and Student Union (학생회관). Each row lists dates from 11/4 to 11/8 and corresponding activities.

탈수습기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당당히 내딛는 첫걸음

모든 체력을 필드에 쏟아부어 축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 때 흐르는 땀을 시원한 물로 씻어내면 승패에 상관없이 언제나 피로는 풀리고 왠지 모를 뿌듯함까지 밀려온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신문사 생활은 나에게 또 하나의 필드로 이러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다.

지난 6월, 친구의 권유로 별다른 생각 없이 신문사에 들어왔다. 그러나 신문사 생활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취재와 기사마감, 조판작업으로 마음놓고 친구들과 만날 수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그리고 늘어난 가는 기사분량과 잘 써야한다는 부담감 갈수록 피를 말리는 고통처럼 다가왔다. 또한 내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신문사 일정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고, 신문사에 대한 회의는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이어진 몇 번의 이탈. 하지만 그때마다 학내 곳곳에서 내가 쓴 기사를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기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만든 신문을 월요일에 펴보는 순간 맛보

았던 그 뿌듯한 기분을 잊지 못해, 때면 나의 발걸음은 어느덧 신문사로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철없고 어리던 내가 6개월의 수습과정을 마치고 정기자라 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내가 몰랐던 사회의 모순점들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이 경험들은 앞으로의 신문사 생활은 물론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겠다. 대학기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순수한 열정과 신념을 바탕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도 신문사 생활은 나에게 벽찬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3만 독자를 생각하며 축구에서 가장 많은 운동량을 소화하는 미드필더처럼 신문사에서 가장 열심히 뛰여 다니는 기자가 되겠다. 정기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최유서 기자
kauri21@dongguk.edu



학내 공연 문화 둘러보기

인식변화 · 공간활용으로 돌파구 찾아야

학생들은 학내에서 진행되는 동아리·소모임 등의 공연을 통해 가장 쉽게 대 학문화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 전용 공연장이 없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부족해 학내 공연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공연장들마저도 용도·시설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학내공연장들을 돌아보며 각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학내공연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 ① 학내 공연장 진단
- ② 학내 공연 활성화 대안 제시

최근 학내에 각 단과대 축제와 학과의 학술제가 붐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힙합이나 락 그룹의 초청공연을 하거나 영화상영, 연극제, 노래자랑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을 뒷받침해 줄만한 공연무대나 시설은 어떠한가. 전용공연장의 부재에 따른 공연시설 부족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던 것이다. 또한 주로 쓰이고 있는 만해광장과 중강당, 학림관소강당 등의 공연장도 용도와 시설상의 문제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학내에서 제대로 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측과 동아리, 일반학생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학교측은 공연시설 확충이 곧 학생 복지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교육 분야에 대한 투

자와는 별도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밑바탕임을 말이다. 90주년기념관의 예술극장이 동아리공연 등의 여러 학내행사를 제치고 주로 외부행사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학교측의 이러한 인식부족 때문이다. 더불어 본교의 대표적 공연장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시설점검도 시급한 상태이며 열악한 공연시설물에 대한 예산확충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우천시 비가 샌다는 학림관소강당은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돼야 하며, 영사기나 음향시설과 같은 시설장비의 전폭적인 교환과 수리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내 공연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간부족 문제다. 하지만 해결책은 공연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학내 쉼터공간을 작은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까. 상록원 앞이나 혜화관 옆에 마련된 휴식공간에 조그마한 조명과 음향시설만 갖춘다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손색없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현재의 모습에서 공연부와 동아리의 활동무대로, 더 나아가 이들이 함께 호흡하는 학내공연문화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지난 백상예술제때 혜화관 옆 쉼터를 야외카페로 시범운영 했다. 간단한 조명과 음향설치만으로도 무대는 마련됐으며, 이 날 펼쳐진 마술쇼와 오케스트라 연주는 학생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 사례는 학내 공연문화가 굳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또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되는 '차없는 날'을 이용해 동아로나 통일광장에 다양한 거리전을 펼친다거나 녹두거리에서 중구주인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를 기획해 학내 공연문화 살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남대학교 후문을 건넌 대학로로 만들기 위한 모임인 모난돌(www.monandol.net)이 학교주변에서 '거리불영화제'나 '락 페스티벌' '명사초청강연회'를 열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 것처럼 말이다.

임신부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문화적 환경이 사람의 인성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이는 비단 태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체와 같은 존재이다. 때문에 학내 공연문화 활성화를 학교측과 학생들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클릭! 타임즈포유 (www.times4u.com)



플라워 등 가을과 어울리는 영화들의 추천리뷰가 올라와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주엘 에글로프의 '장외사 강그리움' 등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독특한 내용과 감동이 있는 책들의 리뷰를 볼 수 있는 book 코너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책을 소개하는 필자가 고정적이지 않아 매주 색다른 성격의 글을 접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comic 코너도 볼거리 만 하다. 이 코너는 재미있는 카툰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빨강머리 앤, 20세기 소년 등 만화사에서 의미를 갖는 작품을 재조명해본다.

그러나 방문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는 점은 이 사이트의 '육의 티'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순수 아마추어 문화평론가들이 문화에 대한 남다른 시각과 특목되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타임즈포유. 뭔가 색다르고, 뭔가 신선한 것을 원한다면 바로 이 곳 '인디 문화의 섬'을 방문해 보라.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망망대해 인터넷 바다에 사람과 영화와 책, 세 가지로 자신들만의 섬을 만들고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머무는 섬은 바로 문화웹진 '타임즈포유(www.times4u.com)'이다.

타임즈포유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순수문화를 표방하며 만든 주간 문화웹진으로 다양한 문화영역을 넘나든다.

먼저 people은 운영진들이 들려주는 소소한 일상이 이야기에서 '뜨끔함'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준다. 또한 cine에서는 꼭 한번 다시 봐야 하는 '한물 간' 영화들의 리뷰를 만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스터

문학단신

나운규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한국 영화사의 선구자 춘사 나운규의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이틀동안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나운규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주요 행사일정은 △25일=유현목 감독 작 '아리랑', 최무룡 감독 작 '나운규 일대기' 등 관련 작품 상영회와 기념 심포지엄 △26일='그들도 우리처럼' '사의 참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공통경비구역 JSA' 등 역대 춘사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영화제 등이다.

문의 771-8442

일본 미술 컬렉션

일본의 근대 미술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본 미술 컬렉션'이 다음달 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컬렉션은 '백자항아리' '대나무 백로무늬 칠한'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작가들의 일본화, 공예품 등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특히 '명경지수'로 유명한 작가 고무로 스이운의 작품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는 근대 일본과 우리의 미술을 비교감상 할 수 있는 자리로 한·일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398-5137

창작동화상 작품 공모

건국대 '동화와 번역연구소'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창작동화상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공모전은 좋은 동화와 참신한 신인작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미 발표된 순수창작 작품에 한해 △창작 장편동화(200자 원고지 500자내외) △단편동화(4편 이상)으로 모집부문을 나눠 진행된다.

접수는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당선작은 다음달 30일 홈페이지(www.dongwhaac.org)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043)840-3864

매체비평

라디오 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바로 뛰며 옛노래 복원
세계화 속 전통문화 살리기”



사라져가는 구전 민요를 들을 수 있는 MBC 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는 밀실에 갇혀 살아간다. 놀이 터는 텅 비어 있다. 아이들은 밀실에 다름없는 학원으로 끌려갔다. 취흥을

못 이겨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어두컴컴한 지하 노래방에 가야 한다. 비디오 방이나 모델은 원래의 기능 대신 밀실의 사랑을 은유한다. 우리는 그렇게 밀실에 갇혀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3년 동안의 즐거운 노력을 간추린 MBC 최상일 프로듀서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한 인간이 첫머리로 태어나 막 사춘기로 돌입하려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분야에 몰입했다는 집념만으로도 우리의 뒷통수를 후려친다. 최상일 프로듀서는 지난 13년 동안 우리의 산하를 헤매고 다니며 사라져가는 옛노래 1만 4천여 곡을 복원하였고 그 가운데 1만 곡 가량을 총 103장의 CD에 담아 관련 학계, 유네스코, 박물관 등에 자료로 제공하였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문화적 창조 의 결실이며 이 과정에서 방송사가 지속적인 후원을 했다는 점 또한 새겨들 만하다. 이 13년의 결실을 '전통 문화의 계승' '민요 집대성' 식의 말의 성찬으로 그려서는 곤란하다. 이 결실은 갈수록 원자화, 밀실화, 규격화되는 우리 삶의 어떤 이면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것이며 아메리카니즘의 폭압적 단일성에 응징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자신의 집합적 과거에 대한 집요한 탐색과 복원으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화 '블레이드 런너'의 암시처럼 현대인에게 있어 추억이란 표준 규격의 공산품으로 주입된다. 똑같은 스타일의

거대한 복제공장으로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물질적 만족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 저마다의 고유한 추억이 있다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에서 낯과 다른 미래를 꿈꿀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규격화, 동일화 된 후 그 틀 안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값비싼 소비재로 온몸에 주렁주렁 걸치는 것밖에 없다. 대학생들이 명품 신드롬에 빠져 지내는데도 그들이 저마다 독특한 자아로 대접받으며 성장하고 그 바탕 아래 참다운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참다운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집단적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고 '세계화'의 물결 아래 모조리 '미국식' 문화로 재편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 나라의 고유한 자부심, 나름의 자존심, 최소한의 공동체적 미덕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그저 자본주의의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한 출혈 경쟁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참다운 개인의 상실, 거세당하는 문화적 뿌리들, 아메리카니즘의 폭압적 대세 등이 겹쳐지는 상황에서 최상일 프로듀서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단순히 사라져가는 옛 기억을 복원하려는 향수가 아니라 문화적 대세에 주눅 들지 않고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향기로 대응하려는 소중한 양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운수 문화평론가

만화열차, 대중문화 속으로 출발!

만약 사람들에게 보통의 위인전과 만화형식으로 쓰여진 위인전 중 하나를 택해 읽으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더 많이 고를까. 아마도 대다수가 후자를 택할 것이다. 만화를 통하여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라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화는 이처럼 형식면에서 큰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음란성과 폭력성이 주류를 이룬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소 평가돼 왔다. 때문에 정부도 만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제작보다는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는 일 분만화 수입에 열을 올렸다.

작품성 인정받아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유수의 교육·예술만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만화의 작품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국내 만화의 양적·질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만화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와 함께 '빌러 보는 책'으로만 치부되던 만화책이 소장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만화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출판만화 뿐 아니라 TV·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생산과 수요를 늘렸다. 더불어 대학에 애니메이션 학과가 창립되는가 하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가 판매순위 1위를 차지하고 사회과학서적이 만화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한국만화가협회(회장=김수정)는 11월 3일을 '만화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만화의 날 기념 행사들은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 만화를 선보이는 자리들로 마련됐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국내 만화를 상영하는 '서울만화애니카니발'과 만화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하는 국토순례 '한계령을 넘어 서울로, 만화로'를 들 수 있다.

한편 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만화의 소비를 늘리고 만화 행사를 풍성하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만화의 주변 표현 방식인 과장과 판타지 등이 영화, TV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영역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양한 문화영역으로

우선 만화적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영화를 꼽을 수 있다. 내용면에서 만화의 성격을 띠는 영화는 '플란다스의 개' '신라의 달밤' 등 그 수가 매우 많으며 제작방식에서 만화적 기법이 사용된 영화로는 화면을 분할한 '길러들의 수다'와 수채화풍의 만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와인과 준하'가 있다.

또한 영화 뿐만 아니라 TV도 만화 같은 줄거리와 기법을 내세운 프로그램들을 연이어 제작하는 추세다. 그 예로 허영만의 만화를 각색한 '미스터리', 얼마 전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며 종영한 '명랑소녀 성공기' 등 트렌디 드라마와 화면

에 출연자의 캐리커처나 말풍선 등을 그려 넣는 쇼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연극 '유리 가면 episode 2'가 무대의 제약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화적 기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만화에 대해 달라진 인식은 무엇보다 문화 분야에 큰 수확을 가져왔다. 첫 번째로는

만화가 전혀 다른 성격의 매체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 내고 양자 모두에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한 독자적인 국내 만화가 꾸준히 제작되도록 하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만화가 문화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한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세계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국내 만화 시장에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외국 작품들과 차별성을 지니는 작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만화가 답답한 사각들을 벗어던지고 대중문화에 발을 내밀었듯이, 우리도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출해 그것을 즐길 때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만화잔치 열렸네

만화책이나 잡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던 둘리와 푸가가 현실세계로 나왔다.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

'만화! 애니야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코스프레팀인 '천사금렵구' '파이널 판타지X' 등의 화려한 코스프레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날 방문객의 얼굴을 만화의 캐릭터처럼 그려주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캐릭터쳐 그려주기'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원수연, 박희정, 하시현 등 유명한 여성만화가를 만날 수 있는 여성작가사인회가 마련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 함께 캐릭터쇼의 한 부분으로 완벽한 의상과 분장으로 '버털도사'의 한 장면을 재현한 무대행사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화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오세일' 등 장·단편작품을 무료로 상영한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프쇼'와 '만화 삼국지' '만화 한국사' 등 만화의 정보제공적 가치를 알리는 만화책 나눠주기 행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 개성있는 캐릭터를 그리는 '벽화만들기'와 기존 만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는 앙케이트 조사는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케 했다. 이와 관련해 행사를 기획한 큐레이터 최인선(28) 씨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Sicaf가 프랑스의 안시페스티벌이나 일본의 히로시마페스티벌처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갑작스런 일정 변동이나,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캐릭터 상품의 판매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과 국내작품을 비교하거나 우리 만화의 현재 수준과 장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들이 국내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외의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세계적 페스티벌로 거듭나길 바란다.

(속)
nature41@dongguk.edu



일상 속 활력충전 100% 만화카페

기존 고정관념 탈피해 기호·휴식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담배연기 자욱한 탁한 공기와 어두침침한 실내. 어딘지 모르게 은밀하고 폐쇄된 공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화방'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만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만화를 즐기는 공간과 그 공간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소모적으로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만화를 하나의 기호로, 취미생활로 즐기면서 지친 일상 속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만화카페' '만화비'와 같이 그 공간만의 특색을 살린 이름을 내걸고 나타난 이런 곳들은 만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마련한다.

대학로 성균관대학교 앞에 위치한 '컬트 만화시대'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폭신해 보이는 긴의자와 예쁜 화분 등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벽면을 가득채운 수천, 수만권의 만화책만 아니면 어느 카페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밝은 실내에는 조용한 가운데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금연석도 마련되어 있어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서비스가 돋보인다.

이곳의 손님 중 남녀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이전과는 달리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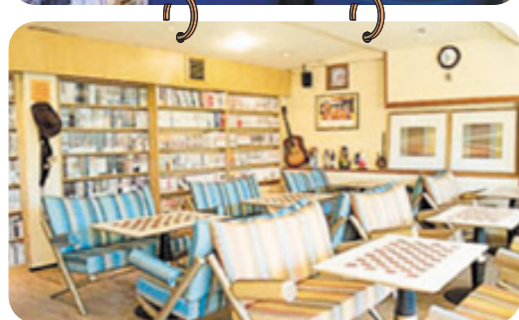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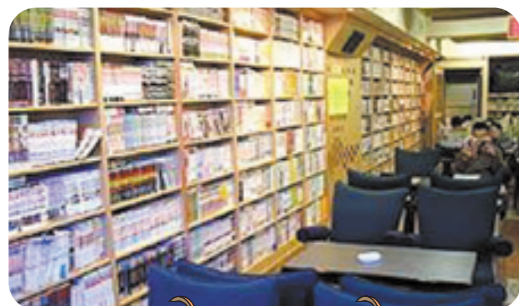
손님의 수가 증가한 것 역시 만화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촌 연세대학교 앞의 '21세기 만화카페'는 운영부터가 카페이어서,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라면을 먹으면 시간제한 없이 카페 내에 비치된 만화를 마음껏 볼 수 있다. 식사를 하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만화책도 볼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하겠다. 이런 공간들은 '만화+카페'의 형태인 만화카페 뿐만 아니라 '만화+PC방' '만화+PC방+커피숍' 등의 형태로도 구성되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하지만 이런 만화공간들은 초기투자비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기에 업종을 바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더욱 차별화된 컨셉트를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만화는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편견의 벽을 깨고 이제서야 그 가치를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와 함께 만화공간 또한 만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생활 속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메아리

회귀본능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개봉한 영화 '박하사탕'. 99년 현재로부터 정치적 격변기였던 79년까지 시간을 역순으로 추적해나가며 주인공 영호의 삶을 돌아본 영화 박하사탕은 뛰어난 작품성으로 관객들과 영화계에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기차가 다가오는 철길 위에서 지난 시절로 돌아가고자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는 영호의 모습을 시작으로 카메라는 시간을 거슬러 가며 지

난날의 시간여행을 시작한다. ▲2002년, 다시 과거 군부 독재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얼마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한 살인사건 피의자가 수사 도중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과정에서 폭력은 없었다'는 사건 초기의 주장과 달리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

는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피의자에 의해 물고문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은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스스로 '인권대통령'임을 자처하던 국민의 정부에서 과거 군부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검찰에서 사건 초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은폐하려 하다 문

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구타한 사실을 시인한 점은 엄격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버젓이 고문이 자행되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숨졌다는 사실에도 단지 고문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순수했던 젊은 날로 돌아가려고 괴로워하는 영호와 인권을 외치면서 여전히 고문에 의한 수사방식을 답습하며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듯한 검찰의 모습은 어떤지 슬퍼 보인다. 검찰 스스로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이번 기회에 다시는 고문이 저질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날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방식을 그리워하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 '너 다시 돌아갈래?'
염태규 사진·여론부장
snail11@dongguk.edu